

침실분리 연령기준에 대한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의견차이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responses to the age standard not to share bedrooms among family members

조 재 순*
Cho, Jae-S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responses to the minimum standard of age suggested by previous research not to share bedroom among parents and child, children of the opposite sex, or children of the same sex. The data from 310 pairs of junior school students and their mothers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ntages of agreements to the suggested ages were not the same. Adolescents were in general more likely flexible to the minimum age than were their mothers. The age standard of the opposite sex children over 10 years old must not share a bedroom was the most agreeable both to child and mother. Both mother and adolescents' children were more likely flexible to the rule that parents should not share a bedroom with a child over age 5. However, they were serious about sharing a bedroom between same sex children regardless age. Further research should reveal precisely the age standard represent the high agreement among the family members.

I. 서 론

가족구성원에게 알맞은 침실수를 갖춘 주거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가족의 주거생활만족도 또는 주거생활의 질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가족생활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흔히 평수로 나타내는 주택규모는 침실과 더불어 거실, 부엌, 화장실, 욕실, 통로공간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중에서 가족수와 가족구성에 따라 공간요구에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침실수이다.

특히 침실수 확보는 가족특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전 가족생활주기를 통해 계속해서 해결해야 하는 주요한 과제이긴 하나 특히 청소년 자녀의 건강한 사회 심리적·성적발달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윤가현, 1990)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에게 있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된다.

미시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가족은 구성원의 수와 연령 및 성별 등에 따라 세대분리나 근친상간금지 등의 사회규범을 고려하여 가족구성원간에 동일한 침실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방을 사용하기도 한다(Morris & Winter, 1996). 이 때 적용되는 침실분리규범은 가족원 중 누가 누구와 어떤 조건에서 몇 살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화적 규정으로서 특정 가족상황에 맞춰 최소한 몇 개의 침실이 필요한가를 산정

* 정회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Ph. D.
이 연구는 1999년도 교내연구·장학재단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된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가족에 의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저 기준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욕구 또는 사회복지 성격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부부를 제외한 각 구성원이 각각 독립된 침실을 사용한다면 필요한 침실수는 최대가 되나, 침실분리규범 기준을 최대로 지킨다면 필요한 침실수는 최소가 될 것이다.

한편, 필요 침실수에 관한 연구는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주거서비스의 소비주체단위인 가족의 주거수준 실태 파악 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거수준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장단기 정책목표 설정 및 사후평가 등 주거복지 정책수립에 긴요한 자료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서의 최소의 주거수준을 의미하며 인간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논의된다. 정부의 최저주거기준은 가족의 침실공간 및 그 외 시설 점유수준에 중점을 두고 이 둘을 합하여 주거면적기준으로 정한다(서울특별시, 1997). 이 침실공간기준이 가족의 주거생활에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침실분리규범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주거상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양호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침실분리규범을 정부의 저소득층의 최저주거수준 확보를 위한 정부정책이나 임대주택 개별임차가구에 필요한 침실수 판정기준으로 이용하고 있다(건설교통부, 1997; 주택산업연구원, 1996). 이 취침분리기준은 식침분리 및 공사분리와 더불어 주택공간계획에 적용되는 주요한 원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필요한 침실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서 침실분리연령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침실분리연령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기준연령을 근거 없이 연구자 임의로 제시한 경우(한국과학기술연구소, 1979; 정운, 1980; 최승룡, 1984; 국토개발연구원, 1986; 서울특별시, 1997)와 실증연구를 통해 응답자의 규범을 제시한 경우(대한주택공사, 1977; 홍형욱, 1986, 1987; 이선옥, 1996; 건설교통부,

1997)가 혼재되어 있으며 연구대상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선행연구에 제시된 침실분리연령기준을 실제 적용하는 일반 가족구성원의 반응에 대한 평가가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 이성형제자매간, 동성형제자매간 침실분리연령에 관한 선행연구결과에 나타난 기준연령에 대해 실제 주거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주부와 프라이버시의 요구가 큰 청소년 자녀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들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주로 연구기관에 의해 제시된 취침분리연령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실제적 적용자인 가족구성원 두 세대에 의해 평가해본다는데 의의가 있다.

II. 선행연구고찰

침실분리규범에는 침실을 분리해서 사용해야 하는 큰 자녀의 연령, 한 방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사용인원수, 한 방을 같이 사용하는 자녀간의 최대 허용연령차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Morris & Winter, 1996) 본 연구에서는 세대간, 형제자매간 침실을 분리해야 할 때 적용되는 큰 자녀의 연령기준에만 중점을 두고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1. 부모와 자녀의 침실분리연령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침실을 사용하는 허용 정도가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내 선행연구 결과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가 몇 살까지 부모와 같이 방을 사용할 수 있는가 혹은 몇 살부터 사용할 수 없는가에 대한 최대허용 자녀연령에 대한 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최대허용 자녀연령을 가장 낮게는 3세까지(서울특별시, 1997)부터 가장 높게는 10세까지(정운, 1980)로 나타나 기준범위가 넓은 편이며 최근의 연구로 올수록 허용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6세까지 허용하자(주택공사, 1977;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979; 국토개발연구원, 1986) 견해를 갖고 있음에 반해, 일반 사회구성원은 5~8세로(홍형옥, 1987; 이선옥, 1995; 건설교통부, 1997) 나타나 침실분리연령에 관해 전문가와 일반 사회구성원간의 견해 차이가 다소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선옥(1995)의 연구에서는 현 주택 규모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침실분리시기에 차이가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 주거상황이 주거규모의 차이처럼 잘 못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Morris et al., 1984).

한편 외국의 경우를 보면 영국의 공공주택 입주기준에서는 자녀연령이 1세가 기준이며, 일본의 최저거주수준에서는 5세이고 유도수준에서는 3세로 설정되어 있다(건설교통부, 1997). 미국 APHA의 기준에서는 자녀연령에 상관없이 부부는 자녀와 분리된 침실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다(Morris & Winter, 1996).

본 연구에서는 건설교통부(1997)의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4세까지는 자녀가 부모와 한 방에서 취침할 수 있으나 5세부터는 침실을 분리해야 한다는 연령기준에 대해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견과 그 일치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이성형제 침실분리연령

자녀가 일정한 연령이 되어 부모와 자녀 세대 간 침실을 분리하면 외동이 자녀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독방을 사용하겠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자녀들이 침실을 함께 사용하게 된다. 자녀의 성별과 연령차에 따라 침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연령제한이 같지 않는데 대체로 이성형제간은 동성형제간 보다 동실 사용에 대한 최대 허용연령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자녀의 성별 취침분리에 관한 외국의 규범을 보면 영국의 공공주택거주기준에서는 6세, 일본의 최저거주수준과 유도수준에서는 12세이며(건설교통부, 1997), 미국에서는 9세가 최대허용연

령이다(Morris & Winter, 1996).

이성형제간 침실을 분리해야 하는 최대연령은 13세(국토개발연구원, 1986), 12세(최승룡, 1984), 11세(정운, 1980)등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최근 연구에서는 건설교통부(1997)가 8세, 서울특별시(1997)가 10세를 제시하고 있어 최저기준으로써 10세를 기준으로 어머니와 청소년의 의견과 그 일치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3. 동성형제자매의 침실분리여부

선행연구에 의하면 동성형제자매의 침실분리에 관해 최저기준에서는 연령제한 없이 한 방을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건설교통부, 1997; 국토개발연구원, 1986; 서울특별시, 1997) 침실수의 제한이 크지 않은 경우는 15세를 기준으로 분리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서울특별시, 1997). 1인1실 사용연령에 대해 홍형옥(1986)은 12세, 대한주택공사(1977)와 정운(1980)은 14세, 최승룡(1984)은 18세, 한국과학기술연구소(1979)는 19세를 제시하고 있어 연구결과가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독립된 침실을 확보해야 하는 최고연령은 일본의 최저거주수준에서는 18세 이상, 유도거주수준에서는 12세 이상이며, 대부분 서구 선진국에서는 18세 이상이면 부부를 제외한 누구나 1인 1실을 최저기준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건설교통부(1997)와 서울특별시(1997)의 최저기준인 연령제한 없이 한 방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바탕으로 청소년과 어머니의 의견과 그 일치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침실사용규범과 관련된 세대분리와 성별분리는 식침분리와 더불어 공간계획의 기본 원칙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규범의 원천으로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일반사회구성원의 침실분리규범을 알아내는 실증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규범 적용 대상자인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견해가 이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정 침실수 산정기준에 필요한 침실분리규범의 적용대상자인 청소년과 이들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최근 선행연구가 제시한 최저 기준에 대한 생각과, 부모와 자녀의 의견 일치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인간발달 과정에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프라이버시확보가 크게 필요해지는 사춘기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질문내용의 이해와 응답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편의표집한 인천광역시 소재 2개 중학교,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소재 각1개 중학교 2학년 학생 400명과 이들의 어머니 400명에게 1999년 6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16일간 해당학교 교사를 통해 설문지를 배포한 후 수집하였으며 최종분석에는 어머니와 자녀의 응답이 모두 유효한 310쌍이 이용되었다.

설문조사내용은 부모와 자녀의 침실분리연령, 이성형제간 침실분리연령, 동성형제간 침실분리여부에 관해 각각의 의견을 묻는 3문항과 가족특성관련 6문항, 주거특성관련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침실분리연령기준에 관한 의견은 자녀와 어머니의 응답 분포로 알아보았으며, 교차분석을 통해 세대간 의견일치 및 이 의견일치여부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Ⅳ.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가구의 가족특성으로는 자녀수, 자녀성별구성, 월평균 가계소득, 어머니 학력, 청소년 자녀의 연령 및 성별을 알아보았으며, 주거특성으로는 주택소유형태와 사용방 수에 대해 알아보았다(표 1).

자녀수는 2명이 70.3%로 가장 많았고, 3명 이상이 18.1%, 1명이 11.6% 순이었다. 자녀구성은

아들과 딸이 모두 있는 가구가 52.6%, 아들만 있는 가구가 25.8%, 딸만 있는 가구가 21.6%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계소득은 150만원 미만인 가구 49.3%, 150만원~300만원 미만인 가구 42.7%, 300만원 이상인 가구 8.0%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 57.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졸 이하 24.7%, 전문대졸 이상 17.7%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N (%)	
	자녀수	1명	36(11.6)
		2명	218(70.3)
		3명 이상	56(18.1)
		계	310(100)
	자녀성별구성	아들만	80(25.8)
		딸만	67(21.6)
		아들과 딸	163(52.6)
		계	310(100)
가족특성	월평균가계소득	150만원 미만	142(49.3)
		150~300만원 미만	123(42.7)
		300만원 이상	23(8.0)
		계	288(100)
	어머니학력	중졸 이하	70(24.7)
		고졸	163(57.6)
		전문대졸 이상	50(17.7)
		계	283(100)
	청소년자녀연령	13세	63(20.3)
		14세	219(70.6)
		15세	28(9.0)
		계	310(100)
	청소년자녀성별	남자	131(42.3)
		여자	179(57.7)
		계	283(100)
주거특성	주택소유형태	자가	235(76.1)
		전세	45(14.6)
		월세	20(6.5)
		기타	9(2.9)
			계
	사용방 수	2개 이하	75(24.2)
		3개	182(58.7)
		4개 이상	53(17.1)
		계	283(100)

청소년자녀 연령은 14세가 70.6%로 가장 많았고, 13세 20.3%, 15세가 9.0% 순이었고, 청소년자녀 성별은 남자가 42.3%, 여자가 57.7%로 여자의 표집이 조금 많았다.

조사대상가구의 주택 소유형태는 자가 전체의 76.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전세 14.6%, 월세 6.6%, 기타 2.9% 순이었으며, 사용하는 방의 수는 3개인 가구가 58.7%, 2개 이하인 가구 24.2%, 4개 이상인 가구가 17.1%로 나타났다.

2. 침실분리연령기준에 관한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견

표 2는 사춘기 청소년자녀를 가진 어머니와 청소년자녀 각각을 대상으로 선행연구가 제시한 침실분리연령기준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이다.

표 2. 침실분리연령기준에 관한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견

N=310 (%)			
침실분리 영역	의견	청소년자녀	어머니
부모와 자녀 5세 분리	너무 이르다	173(55.8)	122(39.4)
	적당하다	129(41.6)	180(58.1)
	너무 늦다	8(2.6)	8(2.6)
이성형제 10세 분리	너무 이르다	23(7.4)	8(2.6)
	적당하다	229(73.9)	246(79.4)
	너무 늦다	58(18.7)	56(18.1)
동성형제 한방 사용	괜찮다	203(65.5)	160(51.6)
	안 된다	107(34.5)	150(48.4)

1) 부모와 자녀 침실분리

부모와 자녀의 침실분리와 관련하여 자녀나이가 5세 이상이면 부모와 방을 분리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에 관하여 청소년자녀는 55.8%가 '너무 이르다'고 응답했으며, '적당하다'가 41.6%, '너무 늦다'가 2.6%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는 58.1%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너무 이르다' 39.4%, '너무 늦다' 2.6%로 응답했다. 이 결과에서 자녀가 5세가 되면 부모로부터 방을 분리해

서 취침해야 한다는 연령기준은 너무 이르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청소년자녀가 어머니보다 이르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아서 부모와 자녀의 침실분리연령에 있어 어머니보다 청소년 자녀의 기준연령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 이성형제자매간 침실분리

이성형제간 침실분리 연령기준에서는 큰 자녀가 10세가 되면 방을 분리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에 관하여 청소년자녀의 73.9%, 어머니의 79.4%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여 이 기준에 대해 대다수가 동의하였으며 청소년자녀와 어머니의 의견이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령이 너무 늦다는 의견도 거의 20%정도 나타났다.

3) 동성형제자매간 침실분리

동성형제간 침실분리여부에서는 동성형제끼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한 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에 관하여 청소년 자녀의 65.5%, 어머니의 51.6%가 괜찮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동성자녀끼리 한 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은 의견도 다수 있었으나 여기서도 어머니보다 청소년 자녀의 기준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침실분리연령기준에 관한 세대별 의견차이

1) 자녀연령 5세 기준 부모와 자녀 침실분리

표 3. 자녀연령 5세에 의한 부모와 자녀 침실분리기준에 관한 세대별 의견차이

N(%)				
어머니 청소년 자녀	너무 이르다	적당하다	너무 늦다	계
적당 하다	30(9.7)	96(31.0)	3(1.0)	129(41.6)
너무 늦다	2(0.6)	5(1.6)	1(0.3)	8(2.6)
계	122(39.4)	180(58.1)	8(2.6)	310(100)
	$\chi^2=29.650$		p=.000	

자녀연령 5세를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가 침실을 분리해야 한다는 기준에 관한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견을 교차분석 한 결과(표 3), 60.3% 가족에서는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39.7% 가족은 일치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청소년자녀간 의견이 일치한 60.3%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 세대 모두 '적당하다'로 응답한 가구가 3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너무 이르다' 29.0%, '너무 늦다' 0.3%순 이었다. 반면에 의견이 불일치한 39.7%의 경우는 청소년자녀가 어머니보다 연령기준을 좀 더 늦춰 응답을 한 경우가 27.8%인데 비해, 어머니가 청소년자녀보다 늦춰 응답을 한 가구는 11.9%로 나타나 불일치한 경우는 청소년자녀가 어머니보다 기준을 늦춰 기준연령이 높은 경우가 더 많았다. 교차분석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어머니의견과 청소년자녀 의견이 각각 독립적이지 않고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이성형제간 10세 분리 연령기준

이성형제간 10세 침실분리 연령기준에 관하여 두 세대간 응답에 차이를 알아본 결과(표 4), 67.8%는 세대간 동일하게 응답하였고, 32.2%는 세대간 응답에 차이가 나타났다.

의견이 일치한 67.8%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 세대 모두 '적당하다'로 응답한 가구가 6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너무 늦다' 5.2%, '너

표 4. 큰 자녀 10세에 의한 이성형제간 침실분리 연령기준에 관한 세대별 의견차이

		N (%)			
어머니 청소년 자녀		너무 이르다	적당하다	너무 늦다	계
너무 이르다		3(1.0)	13(4.2)	7(2.3)	23(7.4)
적당 하다		5(1.6)	191(61.6)	33(10.6)	229(73.9)
너무 늦다		0(0.0)	42(13.5)	16(5.2)	58(18.7)
계		8(2.6)	246(79.4)	56(18.1)	310(100)
		$\chi^2 = 20.282$		p = .000	

무 이르다' 1.0% 순으로 나타나 두 세대가 모두 적당하다는 의견에 대체로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응답이 일치하지 않은 32.2%는 청소년자녀가 어머니보다 연령기준을 좀 더 늦춰 응답한 경우가 15.1%, 어머니가 청소년자녀보다 늦춰 응답한 가구는 17.2%이었다. 유의한 교차분석결과는 큰 자녀 10세에 의한 이성형제간 침실분리 연령에 대해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견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3) 동성형제자매간 한 방 사용여부

동성형제나 자매인 경우 큰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한 방을 계속 같이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두 세대간 의견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표 5), 조사대상가구의 52.5%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47.4%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동성형제나 자매의 한 방 사용 여부에 의견이 일치한 경우는 양 세대 모두 '괜찮다'로 응답한 가구가 34.8%이었고, '안 된다'로 응답한 가구는 17.7%로 나타났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년자녀가 어머니보다 좀 더 허용적인 응답을 한 경우가 30.6%, 어머니가 청소년자녀보다 좀 더 허용적인 응답을 한 가구는 16.8%로 나타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년자녀가 어머니보다 동성형제자매간 한 방사용 기준에 대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성형제자매간 한 방 사용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어머니의견과 청소년자녀의 의견에 유의한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동성형제자매간 한 방 계속사용여부에 관한 세대별 의견차이

		N (%)			
어머니 청소년자녀		괜찮다	안 된다	계	
괜찮다		108(34.8)	95(30.6)	203(65.5)	
안 된다		52(16.8)	55(17.7)	107(34.5)	
계		160(51.6)	150(48.4)	310(100)	
		$\chi^2 = .595$		p = .441	

표 6. 월평균 가계소득별 이성형제 10세 분리기준에 관한 의견일치도 차이

월평균 가계소득 이성형제 10세분리	150만원미만		150~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계	
	N	%	N	%	N	%	N	%
어머니-자녀 의견일치	106	74.6	78	63.4	9	39.1	193	67.0
자녀의견 허용적	18	12.7	26	21.1	8	34.8	52	18.1
어머니의견 허용적	18	12.7	19	15.4	6	26.1	43	14.9
계	142	100	123	100	23	100	288	100
$\chi^2=13.051$ $p=.011$								

표 7. 어머니 학력별 이성형제 10세 분리기준에 관한 의견일치도 차이

어머니 학력 이성형제 10세분리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계	
	N	%	N	%	N	%	N	%
어머니-자녀 의견일치	56	80.0	107	65.6	29	58.0	192	67.8
자녀의견 허용적	7	10.0	28	17.2	15	30.0	50	17.7
어머니의견 허용적	7	10.0	28	17.2	6	12.0	41	14.5
계	70	100	163	100	50	100	283	100
$\chi^2=11.012$ $p=.026$								

표 8. 자녀연령별 이성형제 10세 분리기준에 관한 의견일치도 차이

자녀연령 이성형제 10세분리	13세		14세		15세		계	
	N	%	N	%	N	%	N	%
어머니-자녀 의견일치	48	76.2	144	65.8	18	64.3	210	67.7
자녀의견 허용적	12	19.0	33	15.1	8	28.6	53	17.1
어머니의견 허용적	3	4.8	42	19.2	2	7.1	47	15.2
계	63	100	219	100	28	100	310	100
$\chi^2=11.676$ $p=.020$								

표 9. 사용방 수별 이성형제 10세 분리기준에 관한 의견일치도 차이

방 수 이성형제 10세분리	2개 이하		3개		4개 이상		계	
	N	%	N	%	N	%	N	%
어머니-자녀 의견일치	60	80.0	120	65.9	30	56.6	210	67.7
자녀의견 허용적	7	9.3	29	15.9	17	32.1	53	17.1
어머니의견 허용적	8	10.7	33	18.1	6	11.3	47	15.2
계	75	100	182	100	53	100	310	100
$\chi^2=15.039$ $p=.005$								

4. 일반적 특성별 침실분리연령기준에 관한 의견 일치도

침실분리연령기준에 관한 의견일치여부가 각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녀연령 5세에 의한 부모와 자녀 침실분리기준에 관한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견 일치도와 동성형제자매간 한 방 계속 사용여부에 관한 세대별 의견 일치도는 가족특성이나 주거특성 등 8 가지 일반적 특성 중 어떤 것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두 연령기준에 대한 의견 일치도는 일반적 특성과 유의한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큰 자녀 10세에 의한 이성자녀간 침실분리기준에 대한 의견 일치도는 월평균 가계소득, 어머니학력, 청소년자녀 연령, 사용방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7, 8, 9).

이성자녀간 침실분리연령기준이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견 일치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일반적 특성변수인 월평균 가계소득, 어머니 학력, 청소년자녀 연령, 사용방 수 네 변수 모두에서 가계소득이 낮거나, 어머니 학력이 낮거나, 청소년자녀 연령이 낮거나, 사용방 수가 적은 경우는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견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계소득이 높거나, 어머니 학력이 높거나, 청소년자녀 연령이 높거나, 사용방 수가 많을수록 어머니의견보다 청소년자녀의 의견이 더 허용적이었으며, 가계소득을 제외하고는 중간집단의 경우에는 어머니의견이 청소년자녀의 의견보다 더 허용적으로 나타났다. 이성자녀간 침실분리연령 기준인 큰 자녀 연령 10세에 대한 의견이 일치한 67.8% 가운데 90% 이상이 이 연령기준이 적당하다고 보았던 점을 감안해 볼 때, 가계소득이나 어머니학력, 청소년자녀연령이 낮고, 사

용방 수가 적은 가족의 경우는 각각 그렇지 않은 가족의 경우보다 이 연령기준이 적당하다고 볼 뿐 아니라 이러한 의견이 두 세대간 더 많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침실분리연령기준에 대해 이를 일상주거생활에 적용하고 있는 주부와 아울러 프라이버시 요구가 큰 청소년 자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침실분리 연령기준은 선행연구의 세대별 취침분리에 근거하여 자녀연령 5세를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의 침실분리, 큰 자녀연령 10세를 기준으로 이성형제간 침실분리, 동성형제간은 연령에 상관없이 계속 동실 사용 가능여부의 세 영역으로 하였다.

침실분리 연령기준 세 경우에 대해 어머니는 최저 51.6%부터 최고 79.4%, 청소년 자녀는 최저 41.6%부터 최고 73.9%가 동의하고 있어서 경우마다 연령기준에 대한 동의정도가 같지 않았다. 큰 자녀 연령 10세를 기준으로 이성형제가 취침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자녀 모두 동의 비율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연령기준에 대해 청소년 자녀의 연령기준이 어머니의 기준연령보다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를 조사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결과보다 기준 연령이 낮게 제시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의 침실분리를 자녀연령 5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 청소년 자녀는 너무 이르다고 본 반면, 어머니는 적당하다고 하여 최빈값에 차이가 있었다. 아울러 이 연령기준이 너무 늦다고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기준연령이 5세보다 높아져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보인다. 어머니와 자녀의 의견은 60.3% 일치하였으나 이 의견일치는 적당하다고 보는 것과 이르다고 보는 것으로 반반씩 엇갈려 있어 두 세대가 모두 적당하다고 본 경우는 31%에 불과하다. 두 세대간 의

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년 자녀가 어머니 보다 이 연령기준이 너무 이르다고 한 의견이 그 반대 의견보다 2.3배 많았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가족구성원들이 부모 자녀 취침 분리 시 자녀 연령에 대한 기준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연령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큰 자녀 연령 10세를 기준으로 이성형제간 침실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모두 적당하다고 보고 있었으나 각각 20% 가까이는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서 이 연령기준이 10세 보다 낮아져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어머니와 자녀의 의견이 67.8% 일치하여 세 영역의 연령기준 가운데 일치도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90% 이상이 적당하다는 의견으로 일치하였다. 이러한 두 세대간 의견일치는 일반적 특성 가운데 월평균 가계소득, 어머니 학력, 청소년 자녀 연령, 사용방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가계소득이나 어머니 학력이 낮거나 사용방 수가 적은 경우 즉 가족자원 제약이 많은 가족의 어머니와 자녀의 의견일치도가 높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큰 자녀 연령 10세를 기준으로 이성자녀의 침실을 분리하는 것은 두 세대 모두에게 필요한 침실의 최저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동성형제자매는 연령의 제한 없이 한 방을 계속 사용한다는 기준에 대해 절반 정도의 어머니가 동의한 반면 자녀들은 거의 2/3가 동의하였다. 어머니와 자녀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는 절반이 조금 넘었으며 이들 중 괜찮다고 동의한 경우가 34.8%로써, 안 된다고 한 경우보다 약 2배정도 많긴 하지만 이성형제의 침실분리에 나타난 것만큼 우세한 결과는 아니다. 두 세대가 모두 안 된다고 한 경우를 포함하여 어머니의 거의 절반과 자녀의 1/3이상이 동성형제라도 한 방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성형제간 침실분리에 대한 요구 및 침실 분리시 큰

자녀의 연령기준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세 가지 침실분리 연령기준은 가계소득향상이나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의해 기준연령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우리나라보다 주거상황이 훨씬 양호한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이 가족의 일상주거생활에서 필요한 침실수를 산정하는 기준이나 주거정책의 최저주거수준 확보를 위한 판정기준으로 폭넓게 쓰이기 위해서는 제시된 연령기준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일치된 동의가 많을수록 실효성이 클 것이다. 세 가지 침실분리 연령기준에 대해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견이 일치한 경우는 최저 51.5%에서 최고 67.8%로써 동성형제간 취침분리여부에 대해 세대간 일치도가 가장 낮았고 이성형제간 취침분리 연령기준에 대한 일치도가 가장 높았다. 제시한 연령기준이 적당하다고 세대간 의견이 일치한 경우는 31.0%~61.6%로써 특히 부모와 자녀의 침실분리와 동성형제 침실분리의 기준이 적당하다고 일치한 경우는 각각 31.0%, 34.8%로 낮을 뿐만 아니라 너무 이르거나 안 된다는 의견에 일치한 경우도 각각 29.0%, 17.7%나 되기 때문에 이 두 영역의 연령기준은 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건설교통부(1997). 주거기준 도입방안 연구.
2. 국토개발연구원(1986). 거주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3. 대한주택공사(1977). 주택유효수요추정연구.
4. 서울특별시(1997). 복지주거기준제도 도입을 위한 주거기준 및 정책개발연구.
5. 윤가현(1990). 성 심리학. 도서출판 성원사.
6. 이선옥(1996). 대도시 집합주택 거주자의 주거공간규범에 관한 연구: 대구시의 확대기 및 3LDK 거주자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정 윤(1981). 가족구성에 따른 소요 침실수의 산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주택산업연구원(1996).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수요특성 분석연구.
9. 최승룡(1985). 가족구성에 따른 소요 침실수와 주거면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979).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발연구.
11. 홍형욱(1986). 주거조정 및 적응에 관한 예비조사연구: 주거규범·주거결합 차원의 탐색.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 61-73.
12. 홍형욱(1987). 한국인의 주거조정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 Morris, E.W. & Winter, M.(1996). *Housing, Family and Society*. Revised ed. Ames, IA: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4. Morris, E.W., Winter, M., & Sward, M.A.(1984). Reporting error and single-family home norms and preferences. *Housing and Society*, 11(2): 82-97.